2026

INDUSTRY CREDIT OUTLOOK

- 의류 -

KOREA RA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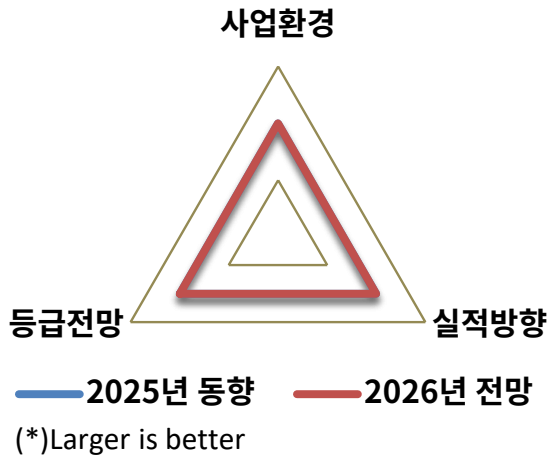
한국기업평가

유준기 기업1실 전문위원
02.368.5315
yoojk@korearatings.com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의류: 구조적 제약 속 완만한 회복

2025년 산업 전망			
사업환경	비우호	**중립**	우호
실적방향	저하	**유지**	개선
등급 전망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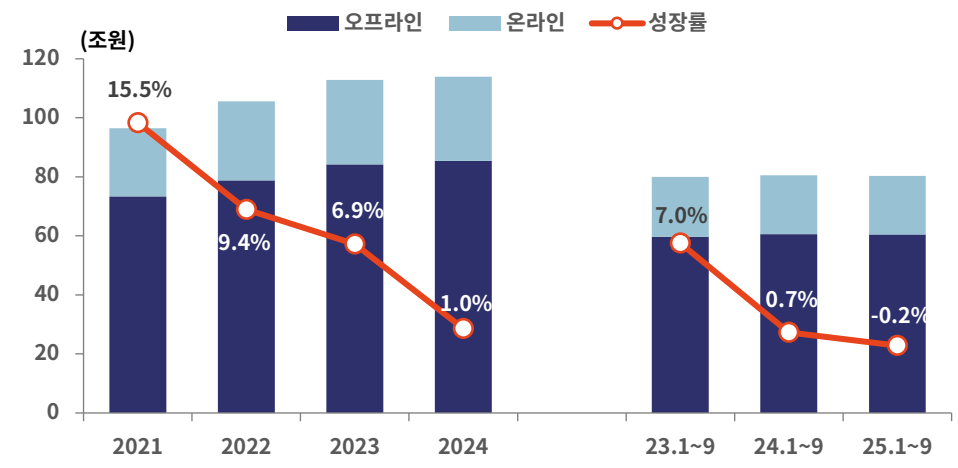


1. 2025년 Review - 내수패션 정체, 의류제조 완만한 회복

내수패션 영업실적 정체, 의류제조 영업실적 완만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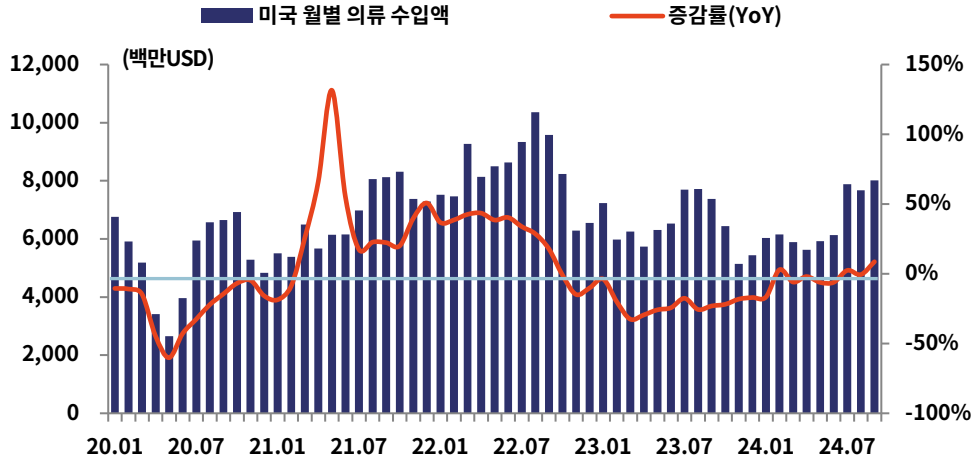
- **내수패션**
  - 고물가, 고금리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이어져 내수 소비심리 위축 → 국내 의류 판매액 성장 정체(2025년 1~9월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
  - 주요 패션업체들의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합산 매출액과 영업수익성 전년 동기 수준
- **의류제조**
  - 2023년 재고조정의 기저효과 및 주요 전방업체들의 수요 회복
  - 전방업체들의 재고 소진 빠르지 않은 가운데, 보수적인 재고정책 유지되고 있어 회복 속도 완만

국내 의류 판매액 추이



자료) 통계청

미국 의류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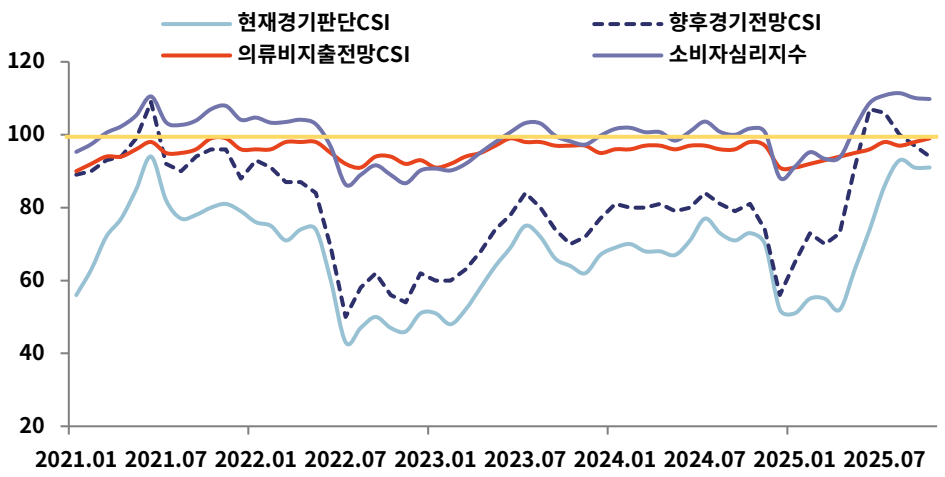
자료) OTEXA

2. 사업환경 전망 - 중립적

업황 사이클의 점진적 회복 기대되나, 회복 속도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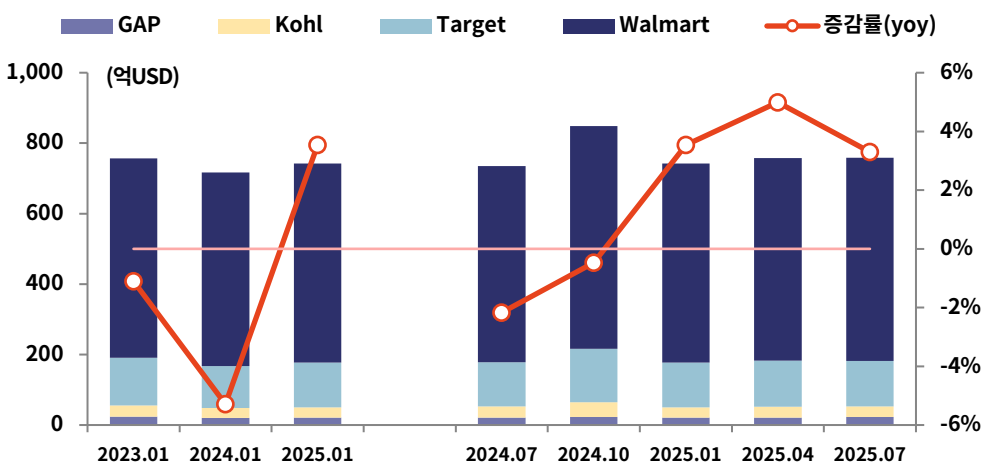
- **내수패션**
  - 2025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주가 상승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
  - 가계부채 부담 지속 등으로 실제 의류 소비 전환까지는 시차 존재하여 2026년 사업환경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의류제조**
  - 주요 전방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며 발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및 주요 전방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관리 정책 등이 사업환경 회복 속도 제한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주요 글로벌 패션·소매업체 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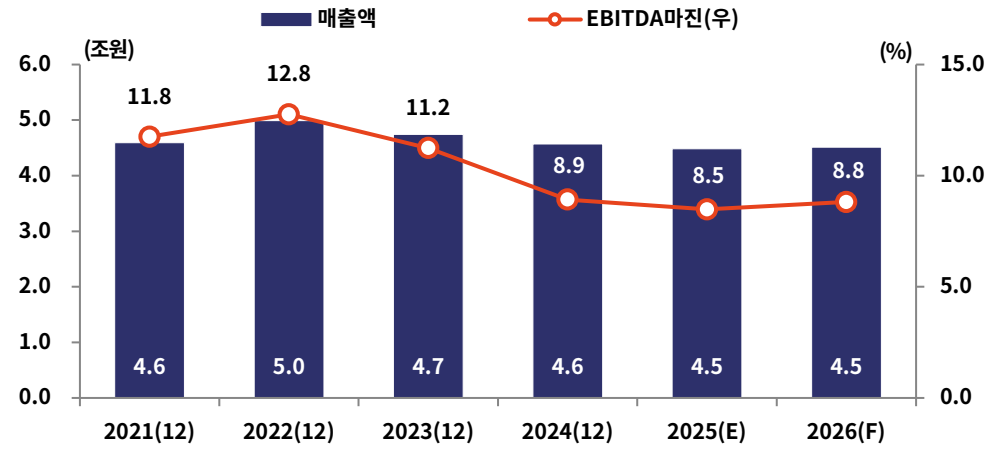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공시자료

3. 실적 전망 - 2025년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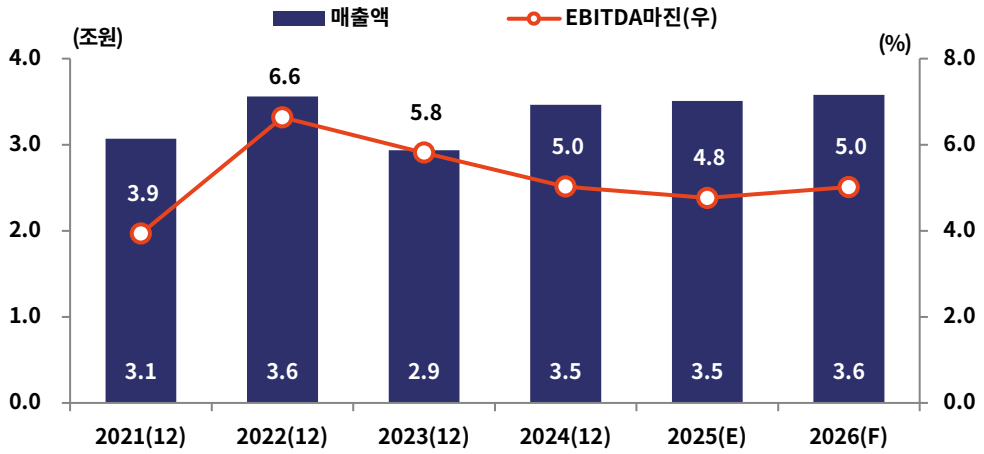
국내 패션업과 의류제조업은 완만한 회복, 수익성은 정체

- **내수패션**
  -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 정책 지원은 긍정적이나, 과도한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소비 제약 상존하여, 2026년 내수패션업체 매출은 2025년과 유사한 수준 예상
  - 원가 상승과 투자 지속으로 2026년 수익성은 2025년 대비 미미한 개선 또는 횡보 전망
- **의류제조**
  - 전방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전방업체들의 신중한 재고정책으로 2026년 의류제조업체 매출은 2025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ESG 비용 부담(환경 인증, 공급망 실사, 친환경 원자재 사용 등) 증가에도, 수직계열화, 자동화설비 투자, 생산지역 다각화 등을 통해 채산성 유지 전망

의류 패션업체 실적 추이 및 전망



의류 제조업체 실적 추이 및 전망



주) 의류패션은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성통상, 패션그룹형지 4개사 합산 기준, 의류제조는 한솔섬유, 신원, 티피 3개사 합산 기준으로 모두 연결실적 기준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 추정

4. 등급 전망 - 중립적

2025년 의류업 등급전망은 중립적

- **2025년 Review: 티피 등급전망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
  - 안정적인 사업기반으로 실적 개선, 확대된 현금창출력 바탕으로 재무안정성 제고, 실적 및 재무안정성 개선세 유지 전망
- **2026년 등급전망 '중립적'**
  -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투자속도 조절과 운전자본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 제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신용도 변동 가능성 크지 않을 전망
  - 주력 브랜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 신규 투자에 따른 차입부담 가중으로 신용도 하방 위험 확대된 일부 업체의 경우, 자구계획 추진 현황 모니터링 필요
  - 내수패션업체 주요 모니터링 요인: 국내 소비경기 회복 수준과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브랜드 런칭에 따른 채산성 변동
  - 의류제조업체 주요 모니터링 요인: 전방업체 오더량 및 공급마진

등급변동 현황

업체명	2022	2023	2024	2025
한섬	A1	A1	A1	A1
신세계인터내셔날	A1	A1	A1	A1
신성통상	BBB(S)/A3	BBB(S)/A3	BBB+(S)/A3+	BBB+(S)/A3+
이랜드월드	BBB(S)/A3	BBB(S)/A3	BBB(S)/A3	BBB(S)/A3
신원	BBB-(S)	BBB-(S)	BBB-(S)/A3-	BBB-(S)
티피	BB+(S)	BB+(S)	BB+(S)	BB+(P)

주) 각 연도 말일 유효등급 기준, 2025년은 공시일(2025.12.11) 기준
자료) 한국기업평가

5. 주요 Credit issue

Q1. 2026년 의류업 신용도의 Key Issue는?

- **국내 및 미국의 소비경기 동향과 이에 따른 수요 회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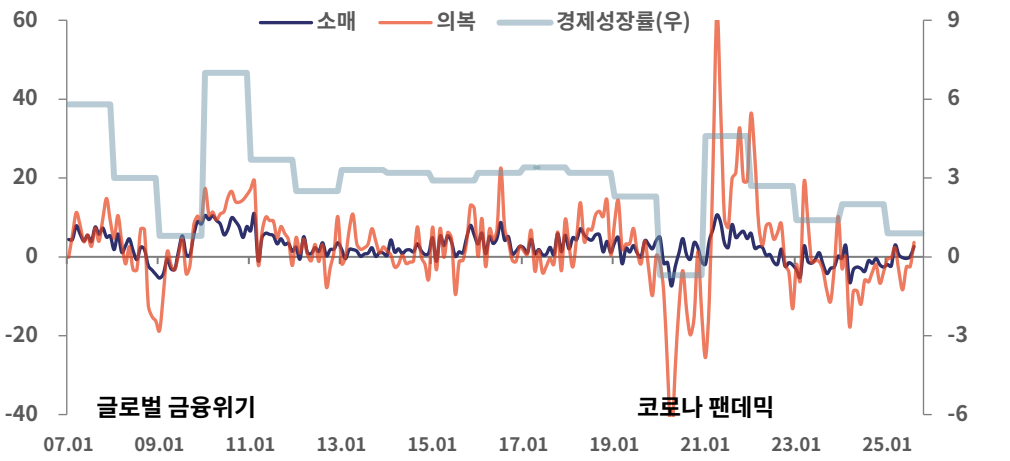
  [국내] 표면적 개선(소비심리 개선)과 구조적 취약성(가계부채 증가)의 공존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및 실질 GDP 성장률 반등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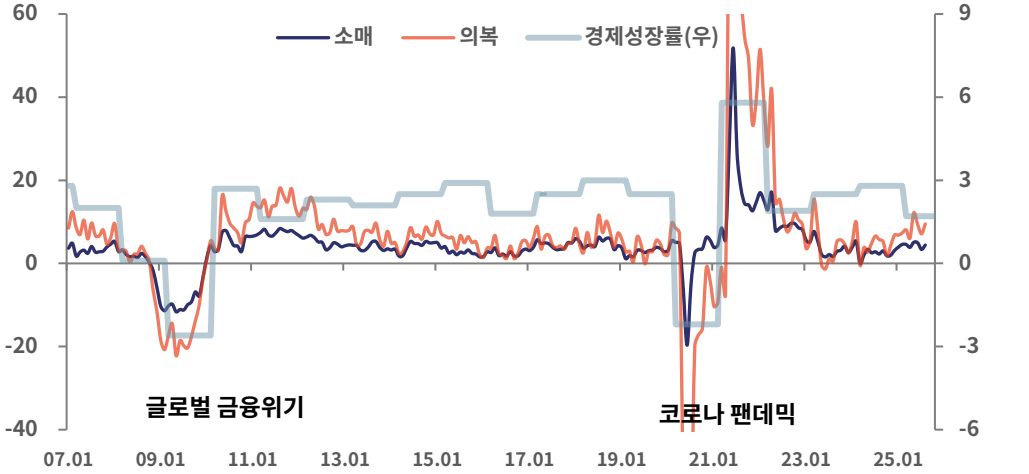
  [미국] 미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 하락에 따라 둔화세,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하락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은 미국 경기에 긍정적, 이민통제정책과 관세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요인으로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국내 소매판매 증감률(yoy)과 경제성장률(%)



미국 소매판매 증감률(yoy)과 경제성장률(%)



주) 소매판매액지수 계절조정수치 기준, 2025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2025.11)
자료) 통계청, U.S. Census Bureau

5. 주요 Credit issue

Q2.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대응은?

-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
  - 미국의 중국산 의류 수입 감소: 중국산 의류 일부 고율관세 부과, 소액 직구 면세제도 폐지(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고율 관세)
  - 미국 의류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체 수요의 위축 예상
  - 중국산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여타 생산국의 상대적 경쟁력 강화 예상
-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가속화**
  - 주요 의류 수출국인 방글라데시의 정치 불안과 가스 위기로 생산 차질 빚으며 공급망 다각화 가속화
  - 주요 수혜 지역: 베트남(미국과 20%의 관세 합의), 중남미(미국 근접 생산), 아프리카 (낮은 관세, 낮은 임금) 등
- **국내 의류제조업체 대응**
  - 과거 중국 내 의류 생산공장 운영했으나, 대부분 2000년~2010년 철수
  -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중남미(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등)를 중심으로 다국가 생산기지 운영
  - 수직계열화 투자로 공급망 통제력 강화, 자동화설비 투자로 인건비 절감 및 품질 안정성 확보
- **공급망 관련 향후 전망**
  - 국내 의류제조업체는 이미 다국가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선점
  -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 의류 소비가 위축되고 발주량이 감소할 가능성 상존, 공급망 다각화 투자비용 발생 가능성
  - 공급망 다각화 성공 여부와 미국 관세 정책 방향이 의류제조업체 중장기 실적 및 재무안정성 결정할 것

Disclaimer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5, Korea Ratings Inc.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감사합니다

[의류] 유준기 전문위원
T. 02.368.5315
E-mail. yoojk@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